

# “출산장려→출생축하”...광양시 인구 성공모델 ‘우뚛’

제도·인식 개편 정책 구조 전환  
작년 1천159명...전년비 23% ↑  
합계출산율 전국 지자체 중 7위

광양시가 과격적인 정책 구조 전환을 통해 출생아 수를 대폭 늘리며 지역사회 상생형 인구 반등의 성공 모델로 우뚛 섰다.

31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출생아 수는 총 1천159명으로, 2024년(941명) 대비 218명 늘어 23.2%의 가파른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치 기준 광양시 합계출산율은 1.32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7위를 기록하며, 연간 출생아 1천명대 회복 역시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이 같은 눈부신 성과는 단일 정책의 결과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와 인식을 전면 개편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2022년부터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해 첫째 500만원, 둘째 1천만원, 셋째 1천500만원, 넷째 이상 2천만원을 지원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례상 명칭을 ‘출산장려’에서 ‘출생축하’로 바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며, 지원 대상 거주 요건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신청 기한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수혜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올해부터는 첫돌부터 네돌까지 지급되는 축하금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미신청 누락 사례나 관련 민원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광양시가 ‘출산장려’에서 ‘출생축하’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상생형 인구 반등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최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들이 ‘뽕도마 만들기’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광양시제공>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가정이 아기 이름과 사진을 보내면 관내

전관관 3곳을 통해 통해 축하 메시지를 실시간 송출한다.

또한 지난해 지상 5층, 연면적 2천106㎡ 규모의 16실을 갖춘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6호점 운영을 시작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둘째 이상 출산가정과 장애인 산모 등에게 14일 기준 10만원, 일반 산모에게도 10일 기준 1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광양시는 지난해 사망자(1천20명)보다 출생아가 더 많아 139명의 의미 있는 자연 증가를 이뤄냈다.

광양시 관계자는 “명확해진 정책에 발맞춰 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첫째 출산이 둘째, 셋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양육 환경을 조성해 인구 증가 흐름을 굳건히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 보성군 ‘전통·현대’ 결합 기획공연 선봬다

국비 2억 확보 연구·뮤지컬 등 10편  
오는 11월 자체 기획공연 ‘심별전’도

보성군이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채로운 장르로 구성된 올해 기획공연 라인업을 확정하고 연중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31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군문화예술회관이 두차례의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국비 총 2억 2천400여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 까지 총 10편의 기획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성과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합회의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이뤄졌다.

지역유통지원사업에는 전통 공연 ‘송소희×두번재달×오단해: 모던민요’와 ‘풍류일가’, 뮤지컬 ‘슈퍼거북 슈퍼토끼’, 연극 ‘국어의 시간’, ‘비온드라이랑’ 등 5개 작품이 선정돼 국비 1억 2천400여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특성화 지원사업에는 연극 ‘헬로우 미스 미스터’, ‘별빛 쏟아지는 마을’, ‘미세스마침’, ‘고스트’, ‘수상한 집주인’ 등 5개 작품이 포함돼 국비 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선정된 10편의 공연은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무대부터 광복 80주년, 나은규의 생애 등 역사

적 소재를 다룬 작품까지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췄다.

군은 오는 11월 자체 기획 공연인 ‘심별전’을 선보이며 연간 운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연별 티켓 예매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모사업 동시 선정으로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며 “연극, 뮤지컬, 전통 공연 등 세대를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라인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지난해 개최된 '2025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장흥군 제공>

## 장흥군 “명량대첩 승리 기포지 회령포 조명”

오는 9월 회진항서 이순신 축제 개최

장흥군이 명량대첩 승리의 기포지인 회령포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의병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재조명하는 특화 축제 준비에 나선다.

31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역 대표 역사·문화 축제인 '2026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회진항 회령포 회진항 물양장 일원에서 열린다.

최근 출범한 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만호 회진항 민민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세부 축제 일정과 조직 구성을 확정했다.

올해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 계승과 더불어 마하수, 정경달 등 장흥 지역 의병들의 활약상을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생생하게 풀어나 독창성을 높인다.

추진위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

지는 체험형·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교육적 가치와 관광 매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만호 추진위원장은 “회령포는 수군을 재건한 명량대첩의 출발점인 만큼 역사적 무게에 걸맞은 품격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며 “장흥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넘어내타 지역 관련 축제와 차별화된 장흥만의 색깔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9월 회령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 곡성군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선정

도 공모 9억5천만원 확보

청년농 블루베리 단지 육성

곡성군이 전남도 주관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청년농이 참여하는 블루베리 특화작목 사업 육성에 나선다.

31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2026년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총 사업비 9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망 원예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단지를 조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청년농이 참여하는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규모화·조직화된 특화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블루베리는 군이 중점 육성해 온 특화작목으

로, 그동안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지자체 중심의 공선출하(공동선발·출하)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향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단순한 생산 확대를 넘어 유

통까지 연계된 지속 가능한 원예산업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곡성 블루베리를 지역 대표 신소득 품목으로 육성할 중요한 계기”라며 “청년농 특화단지 조성 및 공선출하 중심의 유통체계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조성래 곡성군수를 비롯한 군관계자들이 블루베리 농가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 고흥군,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추진

오는 24일까지 예비창업자 모집  
8명 선발 1천800만원 자금 지원

고흥군은 31일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4월 24일까지 '2026년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고일(3월 30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18~4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창업 교육 대상자 20명을 선발해 1박2일간 실무 중심의 창업 집중

교육(부드캠프)을 실시한 후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8명에게는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1인당 최대 1천8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42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401) 또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061-661-1939)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톡톡 튀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여수해수청, 오동도·거문도 등대문화공간 새 단장

야간 경관조명·체험숙소 조성  
관광 체험형 공간으로 대전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 대표 명소인 오동도와 거문도의 등대해양문화공간을 관광객 체험 중심 공간으로 전면 개편한다.

31일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노후화된 등대 공간을 체류형 해양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을 추진한다.

오동도 등대해양문화공간은 야간 방문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채로운 감성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광장 내 부족했던 그늘 공간을 확충해 휴식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홍보관 역시 단순 관람 위주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재구성해 주간 모두 머물기 좋은 체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거문도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빼어난 자연경관 속에서 특별한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체험 숙소' 기능 개선에 집중한다.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거문도 고유의 해양 문화 체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차별화된 콘텐츠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방침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오동도와 거문도 등대가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해양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등 꼼꼼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장성군, 11월까지 ‘숲해설·유아숲 체험’ 운영

장성군은 31일 “오는 11월까지 축령산 편백숲 등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숲해설 및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교육은 전 연령이 참여 가능한 숲해설과 유아유아 대상 유아숲 체험으로 나뉜다.

숲해설은 전문가와 축령산 숲길을 거닐며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사진>

유아숲 체험은 장성공원 유아숲체험원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바닷놀이, 곤충탐험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숲 놀이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숲해설은 ‘숲마미 주식회사’가, 유아숲 체험은 ‘또바기숲’이 각각 전문 위탁 운영을 맡으며, 상세 일정과 교육 참여 안내는 군 산림편백과(061-390-7424)로 문의하면 된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숲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를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 지역 산림복지 저변을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태기 기자